

Reliance, LyondellBasell 인수 추진

세계 최대 PP 생산기업으로 도약 ... 미국 연료시장 진출 교두보 기대

인디아 최대 정유기업 Reliance가 석유화학 메이저 LyondellBasell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인디아 최고 부호인 무케시 암바니가 이끄는 Reliance 그룹은 인수 제안가액을 공개하지 않은 채 파산보호를 신청한 LyondellBasell에 인수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11월22일 발표했다.

싱가폴 소재 에너지부문 컨설팅기업 퍼빈 & 거츠의 빅터 슐 애널리스트는 LyondellBasell 인수액이 100억~12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인디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도 Reliance가 최소 120억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20억달러는 LyondellBasell의 자산에서 부채가액을 뺀 것과 같은 액수로 거래가 성사되면 Reliance가 미국 연료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세계 최대 PP(Polypropylene) 생산기업으로 부상하는 등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iance는 LyondellBasell에 대한 인수제안이 1차적인 것이라며 관례와 채권자들의 충분한 지원 등 상거래상의 통상적인 조건들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2억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암바니는 최근 주주들에게 기업인수를 통한 성장이 수입 증대의 열쇠라고 밝힌 바 있는데 자산의 97%는 현재 인디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ll이 2007년 Lyondell Chemical을 인수해 탄생했던 LyondellBasell은 2009년 1월 미국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채무 지급을 유예한 채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23>